

KOSDAQ | 자본재

성도이엔지 (037350)

반도체·2차전지 등 하이테크산업으로 성장 지속

체크포인트

- 1987년 성도엔지니어링으로 설립, 1999년 (주)성도이엔지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 주요사업영역은 하이테크산업설비(클린룸, 드라이룸 등), 종합건설시공, 플랜트, 가스&케미컬 부문, 부동산개발 부문 영위. 3Q24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하이테크산업설비 44%, 종합건설시공 41%, 가스&케미컬 10%, 플랜트 5%, 부동산개발기타 1% 차지
- 투자포인트: 1)IT, BT, ET 등 하이테크산업비중 확대, 2)우량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의 지분법이익 증가 수혜, 3)가스&케미컬 부문 고성장세, 4)업종내 최대 저평가 밸류에이션
- 2024년 연간 매출액 9,896억 원으로 전년대비 45.8% 급증하며 1조 원 육박, 영업이익은 526억 원으로 YoY +327.3%로 급증 전망. 전 사업부문에서 외형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이테크산업설비와 가스&케미컬 부문에서 가파른 매출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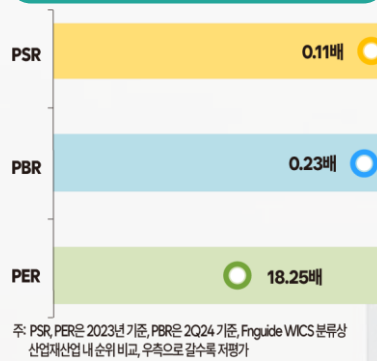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주력 캐시카우인 하이테크산업설비 매출비중 확대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은 2021~2024년 3개년간 매출액 CAGR 38.7%로 고성장세 예상,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수익성은 전체 사업부문 평균을 상회하는 만큼 하이테크산업설비 매출 확대는 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446억 원) 중 하이테크 부문 영업이익은 254억 원으로 전체의 56.9% 차지, 영업이익률은 8.0%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6.1% 상회

우량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의 지분법이익 증가 수혜

관계기업 에스티아이의 실적 개선은 동사의 지분법이익 증가 요인, 에스티아이는 2025년부터 HBM 수요 증가와 신규 리플로우 장비판매 확대로 실적 대폭 증가 예상. 지분법이익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5년 100억 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가스&케미컬 부문 고성장세

2023년 신규 진출한 가스&케미컬 부문은 2024년 매출액 1,084억 원으로 YoY 376.9% 급증 예상. 2024년 3분기 누적 가스&케미컬 부문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동기(-13억 원 적자)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8%를 기록하여 전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수익성 기록

동종업종내 주가는 최대 저평가 국면

2024년 추정실적대비 PER 2.2배, PBR 0.2배로 업종내 최대 저평가 종목. 동종업종 4개사(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신성이엔지, 케이엔솔) 평균 PBR은 0.8배로 동사에 비해 4배 높은 수준.

향후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의 외형성장과 신규로 진출한 가스&케미컬 부문의 수익 기여, 관계기업인 에스티아이의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주가 재평가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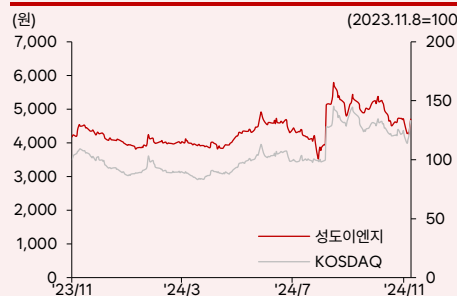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억원)	5,375	5,556	7,058	6,786	9,896
YoY(%)	-22.7	3.4	27.0	-3.9	45.8
영업이익(억원)	192	169	-50	123	526
OP 마진(%)	3.6	3.0	-0.7	1.8	5.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93	214	11	40	335
EPS(원)	5,770	1,380	72	258	2,168
YoY(%)	흑전	-76.1	-94.8	258.3	740.8
PER(배)	0.8	4.1	62.0	15.9	2.2
PSR(배)	0.1	0.2	0.1	0.1	0.1
EV/EBITDA(배)	1.4	1.3	N/A	4.6	0.5
PBR(배)	0.3	0.3	0.3	0.2	0.2
ROE(%)	48.5	8.8	0.4	1.5	12.1
배당수익률(%)	4.4	2.7	2.2	2.4	2.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1/15)	4,705원
52주 최고가	5,780원
52주 최저가	3,530원
KOSDAQ (11/15)	685.42p
자본금	77억원
시가총액	72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24.7%
주요주주	서인수 외 3인 35.2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5	8.3	5.0
상대주가	2.1	36.2	24.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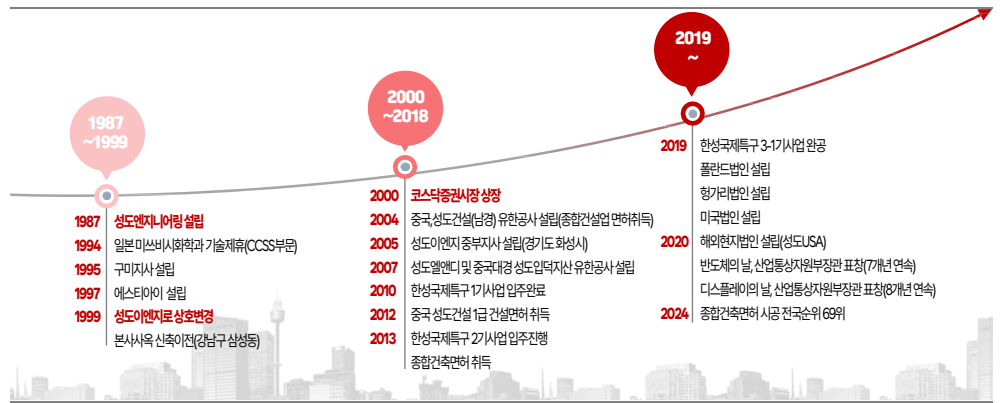
기업 개요

성도이엔지는 1987년 설립된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로
 주요사업 부문은
 하이테크산업설비 및
 종합건설시공으로 양분

하이테크산업, 종합건설시공, 플랜트,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규로 가스&케미컬 사업 진출

성도이엔지는 토목, 건축, 하이테크 산업설비,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동사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태동기에 해외에만 의존하던 엔지니어링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으며, 1988년 성도엔지니어링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1994년 일본 미쓰비시화학과 CCSS¹(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부문에서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1997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1999년 해외영업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성도엔지니어링에서 성도이엔지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동사는 전문건설업으로 시작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의 클린룸 및 반도체 장비 설치 등을 시공하며 종합건설사로 성장하였고, 2000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플랜트 건설 이외에 아파트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2004년 성도건설 유한공사인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 성도엘엔디 및 중국 대경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007년 한성국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2010년 한성국제특구 1기(2648세대) 사업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2013년 2기(2768세대) 사업과 2019년 3-1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3-2기는 A, B공구로 나누어 사업 진행중에 있다. 동사는 해외사업 진출을 강화하고자 2019년 하이테크 전문시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폴란드, 헝가리,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및 충남 아산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미국 및 중국 소재의 해외법인 4곳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종합건설 전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성도이엔지 연혁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¹ CCSS: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장비로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업영역

**3Q24기준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하이테크산업설비 43.6%,
종합건설시공 40.8%,
가스&케미칼 10.2%,
플랜트 4.6%,
부동산 및 기타 0.8%

동사는 하이테크 사업설비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턴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발전·화공 플랜트 분야의 시공사업 및 종합건설 시공업, 가스 & 케미칼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하이테크산업설비, 가스 및 케미칼, 플랜트, 종합건설시공, 부동산 개발 및 기타로 나누어져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하이테크산업설비 43.6%, 종합건설시공 40.8%, 가스&케미칼 10.2%, 플랜트 4.6%, 부동산 및 기타 0.8%이다. 내수/수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내수 64.5%, 수출 35.5%이다.

하이테크 산업설비 사업부문에서는 IT, BT, ET 등 첨단산업의 크린룸 설비 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사업분야의 전방 산업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태양전지&모듈, 바이오&제약, 건축설비, 2차전지 등이 있다. 동사는 타당성 검토, PM업무,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토탈 건설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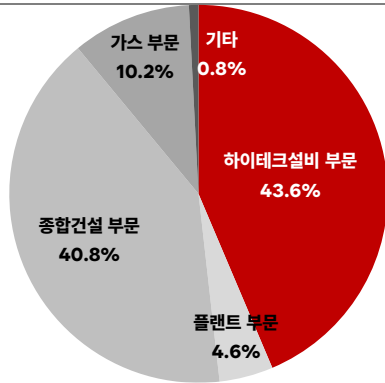
종합건설 시공 사업부문에서는 산업설비 플랜트, 주거 및 일반 건축물, 바이오/제약회사 건축물, 복합물류센터, 식품공장(HACCP) 등을 건설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LCD, 2차전지, 정밀전자, 자동차, 기계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EPC 사업을 진행하며, 무진전자 안성공장, 코비플라텍 평택공장, 여주 고영테크놀로지 등을 신축하였다. 또한, 반도체, 정밀전자부품 플랜트의 시공을 통해 축적해온 공기청정기술과 초 순수 무균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도 설계 업무, 시공, validation 지원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린제약 음성GMP공장, SK플라즈마 L-project,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1 프로젝트 등 바이오/제약회사의 건축물들을 시공하였다. 이외에도 STI 용인공장,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양극재 광양공장 등의 EPC 턴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가스&케미칼 사업부문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어 산업가스, 특수가스 및 케미칼 등의 플랜트를 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2차전지, 반도체, 제철·화학·조선산업 등의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고순도 산소, 질소, 아르곤을 분리 정제하는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 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가스의 저장, 공급, 생산 시설의 설계 구매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으로도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수가스인 Xe과 Kr 공급을 위한 정제 및 포집 시설 등에 대한 설계 구매 및 시공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이 처음으로 227억원 발생하였으며,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744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동사는 국내외에서 정유·석유화학, 발전소, 환경산업 등 다양한 플랜트 건설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U.A.E, 태국 등에서 정유공장의 기기설치 및 배관 공사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사우디, 카타르, 리비아, 러시아 사할린 등의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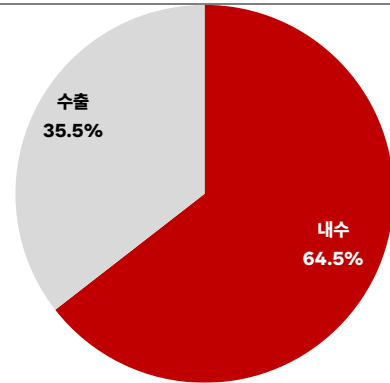
부동산 개발 사업부문으로는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축적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토지매입, 건축계획 및 설계, 인허가, 건설 및 분양까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07년부터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에 진출하여 주택 7,100여 세대를 건립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3Q24누계)



자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매출비중(3Q24누계)



자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성도이엔지 고객사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계열사 및 주주현황

종속회사는 비상장사 9개이며,
 그 중 주요 종속회사는
 성도엘앤디,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 SUNGDO Vietnam
 E&C Co.,LTD임

종속회사는 총 9개로, 모두 비상장사이다. 종속회사들은 하이테크산업설비, 가스&케미칼, 플랜트, 종합건설시공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및 중개무역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외에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해외 법인을 두고 영업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성도엘앤디(지분율 100.0%), 성도입덕자산(대경) 유한공사(지분율 100.0%), SUNGDO Vietnam E&C Co.,LTD(지분율 100.0%)가 있다.

성도엘앤디는 2007년 설립되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하였으며,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 또한 2006년 9월에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성도엘앤디와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는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에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총 3개의 프로젝트로, 1,2프로젝트는 완료되었으며, 제3기 프로젝트는 1,2공구로 분리하여 2017년 3-1기 한성국제특구 개발사업은 완공되었다. 현재 3-

2기는 A와 B공구로 구분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성도엘앤디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는 매출액 57억원, 당기순손익 -6억원을 기록하였다. SUNGDO Vietnam E&C Co.,LTD는 지분을 100%의 베트남 법인으로, 하이테크산업설비 및 종합건설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매출 201억 원, 당기순손익 -11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관계기업으로는 에스티아이(지분율 20.22%)가 있다. 당사는 에스티아이의 최대주주이며, 에스티아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제조회사로 Chemical 중앙공급 시스템, 세정 및 Etching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 2,023억원, 당기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본법 이익으로는 19억 원 을 기여하였다.

최대주주는 서인수 회장으로, 지분율 21.98% 보유

최대주주는 서인수 회장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주식수 340만주로 지분율 21.98%를 차지하고 있다. 서인수 회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1987년 성도엔지니어링(現 성도이엔지)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에스티아이, 성도입덕자산 유한공사의 대표이사 및 성도엘앤디의 사내이사를 겸직 하고 있다. 서인수 회장의 두 자녀인 서예은과 서예나의 지분율 각각 6.69%, 6.46%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5.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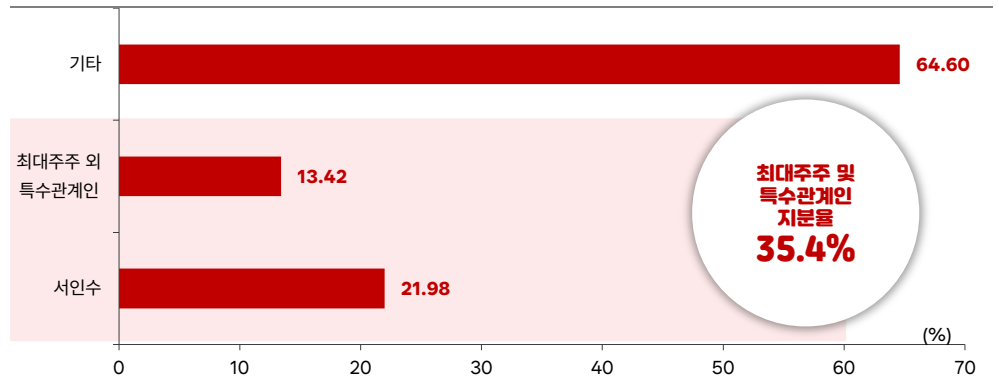
또한, 당사는 자기주식 1,267,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3Q24)

종속회사명	소재지	지분율(%)	설립일	주요영업활동
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	중국	100	2004.7.27	종합건설업
성도엘앤디	한국	100	2007.5.22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상해성도무역유한공사	중국	100	2006.9.14	중개무역
성도입덕자산(대경)유한공사	중국	100	2007.6.20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
한성체육장관(대경)유한공사	중국	100	2012.8.2	골프장운영업
SUNGDO Vietnam E&C Co., Ltd.	베트남	100	2011.9.27	종합건설업
SUNGDO ENG Poland Sp.zo.o	폴란드	100	2019.1.31	하이테크 전문시공
SUNGDO ENG Hungary Kft.	헝가리	100	2019.3.28	하이테크 전문시공
SUNGDO ENG USA INC	미국	100	2020.1.2	하이테크 전문시공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3Q24)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클린룸산업 동향

클린룸산업은 ICR, BCR, DR로 분류, 초기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서 시작해 바이오, 2차전지산업으로 확대

클린룸산업은 생산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과 전자산업을 위주로 발달하기 시작해 현재는 반도체 및 소부장산업, 정밀기기, 광학기기, 2차전지, 식품, 제약/바이오 등의 제조공정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품이 고도화될수록 청정도 유지를 위해 클린룸 설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클린룸은 크게 ICR(Industrial Clean Room)과 BCR(Biological Clean Room), DR(드라이룸)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ICR은 슈퍼클린룸(Super Clean Room)이라 불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클린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BCR은 병원, 제약, 의료기기 등에 요구되는 무균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과거에는 박테리아를 취급하는 실험실이나 제약산업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실, 식품제조, 포장재 산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시장 급성장으로 2차전지 분야(배터리, 전해액,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등)에서 드라이룸(DR)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드라이룸은 실내 공기조건이 노점온도 -40°C, 상대습도 0.5% 이하로 관리되는 저습도 클린룸으로 주로 2차전지 제조라인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이 리튬이온이나 전해액과 반응해 제품의 수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설비이다.

클린룸 및 드라이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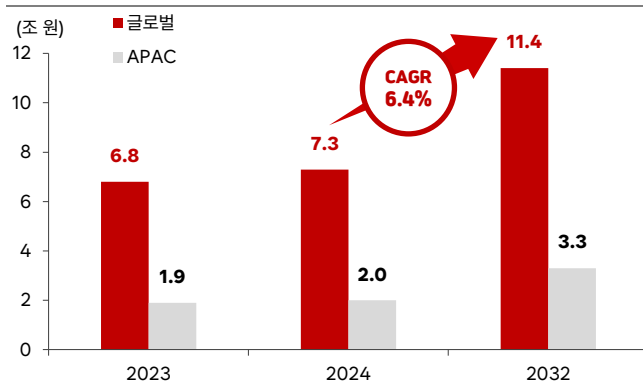
분류	제어대상	적용 산업
산업용 클린룸(ICR)	미립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전자, 정밀산업 등
바이오 클린룸(BCR)	생물입자	제약/바이오, 식품 등 GMP 대상 산업
드라이룸(DR)	수분량	2차전지, 식품, 약품 등

자료: 업계 자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클린룸 시장규모는 2024년 7.3조 원에서 2032년 11.4조 원으로 연평균 6.4%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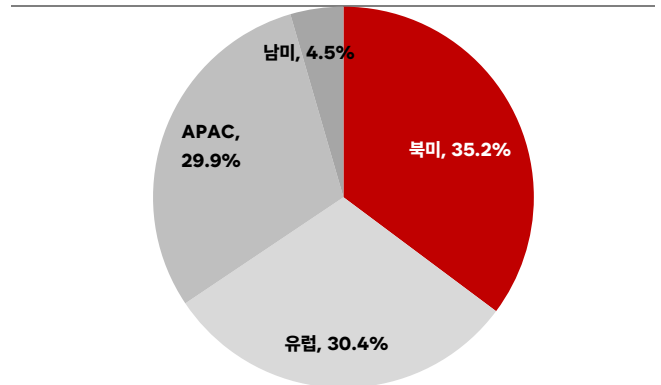
전세계 클린룸 시장규모는 2023년 6.8조 원(50.6억 달러)으로 추산되며, 2024년 7.3조 원에서 2032년 약 11.4조 원으로 연평균 6.4% 성장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클린룸 시장규모는 2023년 11.1억 달러(1.9조 원)로 추산되며, 2024년 약 2조 원에서 2032년 약 3.3조 원으로 연평균 6.9% 성장할 전망이다. 클린룸 시장의 지역별 M/S는 북미 35.2%, 유럽 30.4%, 아태지역 29.9%, 남미 4.5%를 차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클린룸 시장 전망



자료: 신성이엔지 R자료 참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클린룸 시장 M/S 전망



자료: 신성이엔지 R자료 참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클린룸 수요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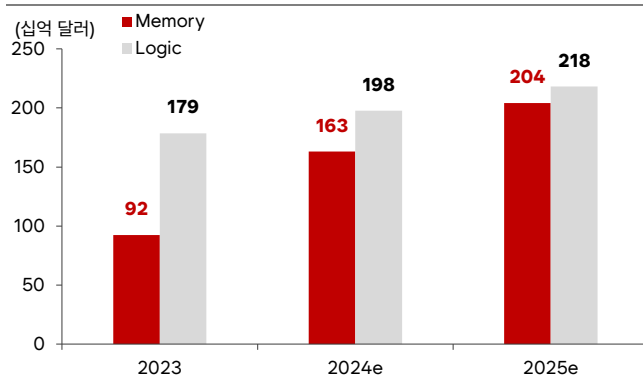
**반도체는 클린룸 최대수요산업,
세계 반도체 산업 시장은
2024년 16.0% 성장에 이어
2025년 12.5% 성장 전망**

클린룸산업의 성장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식품산업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반도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재택근무/온라인 교육에 따른 전자기기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전기차 보급 확대,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다운사이클을 경험하였다. 이는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지만,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CAPEX 투자 과잉으로 반도체 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메모리 반도체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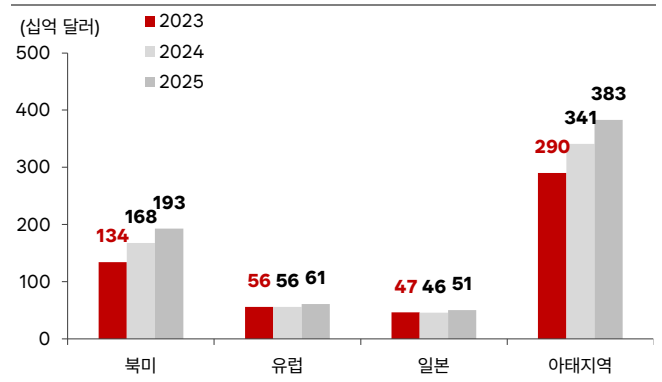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효과와 고가 스마트폰 수요 증가, AI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3년 5,269억 달러에서 2024년 6,112억 달러로 16.0%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연말 전망치대비 3.0%p 상향조정된 것으로 AI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관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1,632억 달러로 전년(923억 달러)대비 무려 76.8% 급증하며, 전체 반도체시장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2024년 시스템반도체 매출액은 1,977억 달러로 전년(1,786억 달러)대비 10.7%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182억 달러로 10.4%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반도체 시장규모는 6,8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2024년 성장률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여전히 두자리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2,043억 달러로 전년대비 25.2% 성장하며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전망



자료: WSTS,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반도체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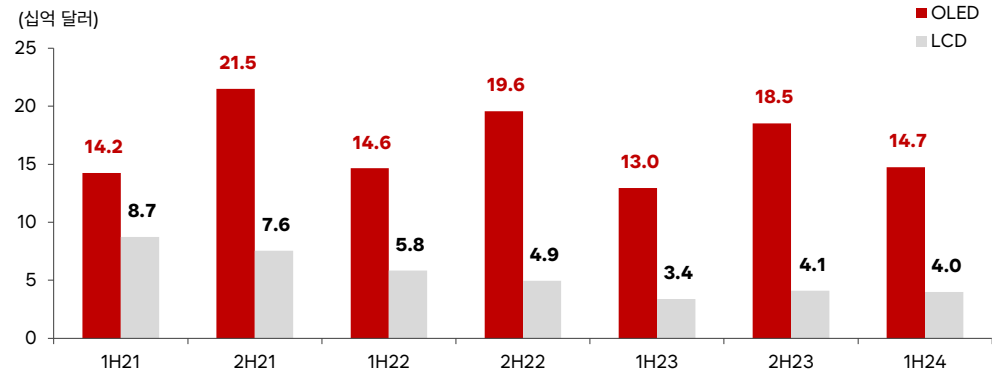
자료: WSTS,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디스플레이산업은 스마트폰 및
프리미엄 TV,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OLED 적용 확대 수혜 예상**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의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TV 수요가 감소하여 대형 OLED 시장도 크게 위축되었고 재고부담으로 가동률도 최저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시장에서의 OLED 도입 확대 및 프리미엄 OLED TV 시장 확대 등으로 중소형 IT OLED 부문 전망은 긍정적이다. 또한 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도 OLED 수요요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매출은 187억 달러(약 26.1조 원)로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에서 OLED 매출은 147억 달러(약 20.5조 원)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LCD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억 달러(약 56조 원)를 기록하였다. OLED 매출 규모는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시장은 단기 수요 정체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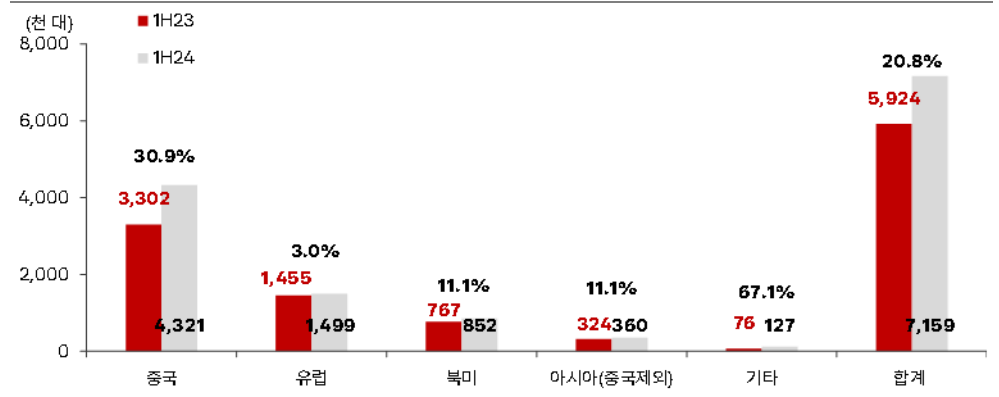
글로벌 전기차(EV)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 수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판매 지원금 충전 인프라 부족, 인플레이션, 원재료 비용 상승, 높은 금리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현상을 보이고 있다.

SNER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230만 대에서 2023년 1,397만 대로 연평균 4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은 2021년 109.0%에서 2022년 56.9%, 2023년 32.5%로 2021년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둔화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누적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716만 대로 전년동기(593만 대)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43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30.9%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전년동기 55.7%에서 60.4%로 확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유럽, 북미, 아시아 등 Ex-China 지역 합산 판매량은 284만 대로 전년동기(262만 대)대비 8.2% 성장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 판매량은 150만 대로 전년동기(146만 대)대비 3.0% 성장에 그쳐 주요 지역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럽지역은 2019~2023년 연평균 51.6%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유럽국가들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기간 북미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85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으며, 아시아(중국 제외) 판매량은 36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1.1% 성장에 그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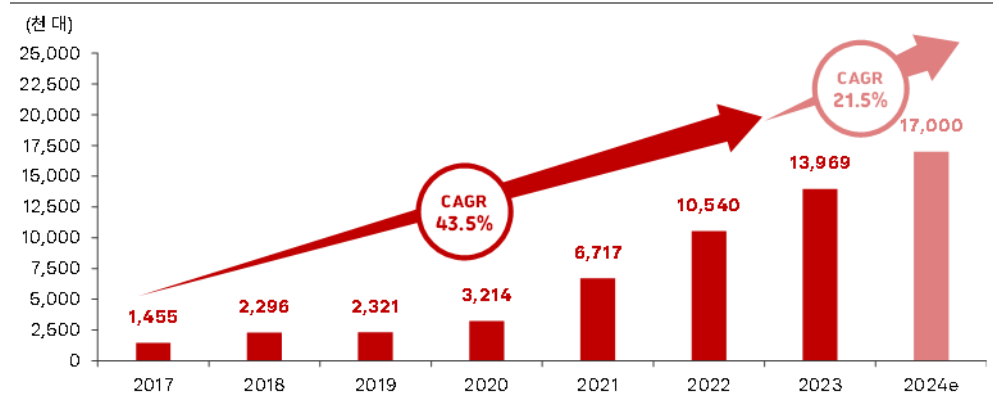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IEA,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700만대로 YoY 21.7% 증가 예상

IEA는 지난 6월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700만 대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고,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로 전년 대비 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EA의 2024년 연간 전기차 성장률 전망치는 SNE리서치가 올해 상반기(1~6월) 누적으로 집계한 성장률(20.8%)과 유사한 수준이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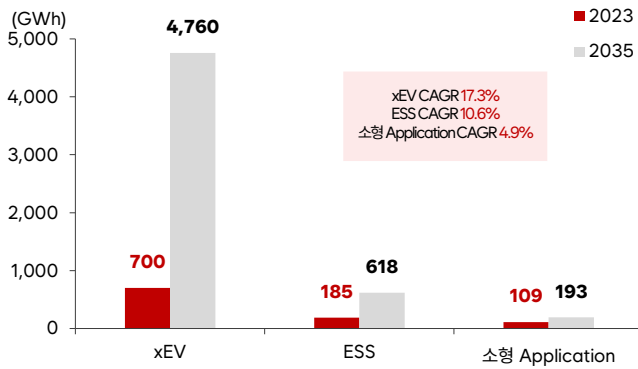
자료: SNE리서치,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xEV向 LIB 수요는 2023년 700GWh에서 2035년 4,760GWh로 CAGR 17.3% 전망

SNE리서치는 지난 5월 '24년 글로벌 LIB Application별 중장기 전망' 자료에서 글로벌 2차전지 수요가 2023년 994GWh에서 연평균 15.4% 성장해 2035년 5,570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12년간 5.6배 이상 성장하는 규모이다. 2035년 LIB Application별 전망을 보면 xEV向이 4,760GWh로 전체 수요의 85%, 뒤이어 ESS向 LIB 수요가 618GWh로 11%, 소형 Application向 수요는 193GWh로 3%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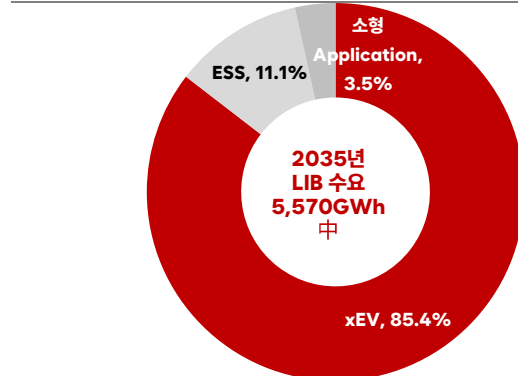
현재 국내 배터리3사들이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대규모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조라인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이 리튬이온이나 전해액과 반응해 제품의 수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저습도 청정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드라이룸의 수요도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

2023~2035년 LIB Application별 수요 전망



자료: SNER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35년 LIB Application별 수요비중 전망



자료: SNER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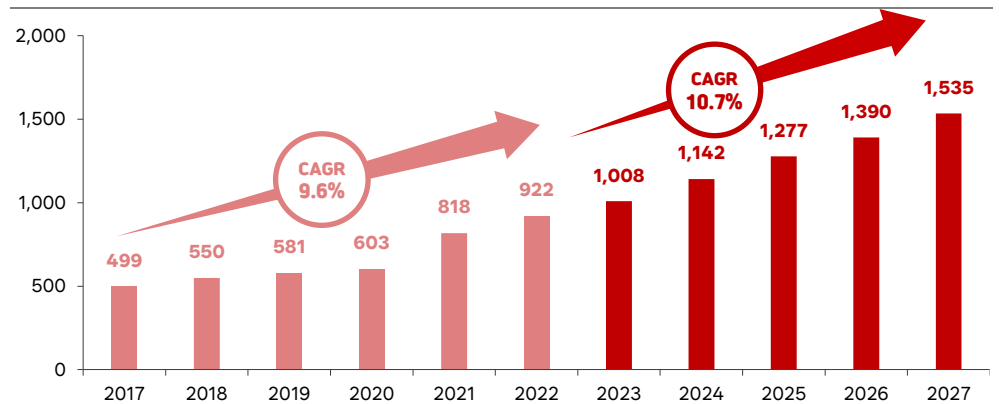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9,222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5,352억 달러로
연평균 10.7% 성장 전망

국내 바이오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 중심으로 시장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9년 국내 최초로 신약이 개발되고, 2008년부터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바이오시밀러업체들이 국내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와 신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백신, 의약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바이오 위탁생산)업체에 맡기면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과 전문인력을 신약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조공정이 간단한 화학합성의약품과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 CMO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GMP(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충족하기 위한 바이오 클린룸(BCR)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Marketline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9,222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5,352억 달러로 연평균 10.7%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체의 44.3%를 차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의료헬스케어가 65.7%를 차지하였다.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평균 CAGR 13.1%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5개년(2022~2027) CAGR은 10.7%로 과거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꾸준히 두자리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망



자료: Marketline(2023.9월),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국내 클린룸산업 경쟁사 현황

국내 클린룸시장 경쟁업체로는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신성이엔지,
성도이엔지, 케이엔솔 등

국내 시장에 상장된 클린룸 관련 하이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는 2024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 순위 기준 한양이엔지(8,666억 원), 성도이엔지(7,309억 원), 세보엠이씨(6,142억 원), 케이엔솔(舊 원방테크, 4,339억 원), 신성이엔지(4,215억 원) 등 주요 5개사가 있다.

한양이엔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플랜트의 배관설비 및 C.C.S.S(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에 특화된 전문업체로 기계설비부문 시공능력 국내 1위업체이다. 국내 최초로 1980년대 후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초고순도(UHP) 배관 전 공정을 국산화했으며, 1990년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하이테크부문이 속한 엔지니어링사업부 89.2%,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 부문이 속한 시스템사업부 10.8%를 차지하였다. 2018~2023년 5개년 매출액 CAGR은 5.4%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66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0% 성장하였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주요산업별 매출비중은 반도체 64.7%, 플랜트 19.9%, CCSS 14.2%, 디스플레이 1.2%를 차지하였다.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등이며, 주요 매출처당 별도 기준 2024년 3분기 매출비중은 약 8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도이엔지

동사는 한양이엔지에 이어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 2위권 업체이나, 클린룸 부문이 속한 하이테크산업설비(ICR, BCR, 드라이룸 등) 매출비중은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44%에 불과하며, 종합건설시공/플랜트/부동산 개발 등 건설 관련 매출비중이 47%로 하이테크산업과 건설산업이 절반 정도씩 하이브리드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2018~2023년 5개년간 매출액 CAGR은 5.1%로 동종업체 5개사 중에서는 성장률이 가장 낮은 점은 저성장 국면의 건설매출 비중이 높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7,30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9% 급증하여 케이엔솔(2차전지 특수로 동기간 58.6% 급성장)에 이어 두번째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동종 5개사 중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수익성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동사의 영업이익은 446억 원으로 전년동기(107억 원)대비 316.8%나 급증하면서 동종 5개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6.1%로 전년동기대비 4.0%p나 상승하여 한양이엔지(OPM 7.9%)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세보엠이씨

1996년 코스닥 상장된 동종업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하이테크 1차 배관 및 덕트 시공 국내 1위업체이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설비공사 93.4%, 플랜트 공사 5.5%, 기타 1.1%를 차지하였다. 설비공사 중 반도체 하이테크 매출비중이 80~9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하이테크 부문 1차 고객사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업체이며, 최종 수요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체이다. 1999년 삼성물산에 납품하며 삼성전자 클린룸(기흥)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7년 SK하이닉스(청주)로부터 첫 수주하며 고객사를 확대하였다. 2022년 반도체 설비투자 집중으로 매출액이 1조 원대를 상회하고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로 매출액이 8,717억 원으로 15.5% 감소했으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하며 동종업종 5개사 중 유일하게 외형이 감소하였다. 2018~2023년 5개년 매출액 CAGR은 13.0%로 동종업종 5개사 중 케이엔솔(CAGR 21.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7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4.4%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였다.

케이엔솔

1989년 설립된 202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동종업종에서는 가장 최근에 상장한 업체이다. 2023년 5월 기준 (주)원방테크에서 케이엔솔로 사명변경하였다.

2024년 3분기 누적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드라이룸 55.9%, 산업용 클린룸(ICR) 27.7%, 바이오클린룸 2.6%, 교량 건설업(거더사업) 13.6%로 2차전지 드라이룸에 특화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으며, 드라이룸을 포함한 전체 클린룸 매출비중은 86.2%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산업용 클린룸 매출비중은 2022년 61.5%에서 2023년 56.7%, 3Q24 누적 27.7%로 축소된 반면, 2차전지 부문 드라이룸 매출비중은 2022년 14.1%에서 2023년 21.2%, 3Q24 누적 55.9%까지 상승하며 전체 외형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바이오클린룸 매출비중은 2022년 6.2%에서 2023년 3.7%, 3Q24 누적 2.6%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의 2018~2023년 5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은 21.1%로 동종업종 5개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33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6% 급증하며 동종업종 5개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사가 2차전지 드라이룸 부문 업계 선도업체로서 최근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보면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전년동기(106억 원)대비 126.6% 성장하였으며,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동기(3.9%)대비 1.6%p 상승하였다.

산성이엔지

1977년 냉난방 공조기 사업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1996년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주요 사업부문 및 매출비중(3Q24 누적)은 클린환경사업(CE) 93.1%, 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6.3%, 기타(임대/용역) 0.6%를 차지한다. 클린룸사업은 클린환경(CE)사업부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FFU/EFU, 클린룸 및 공조시스템, 드라이룸 등을 제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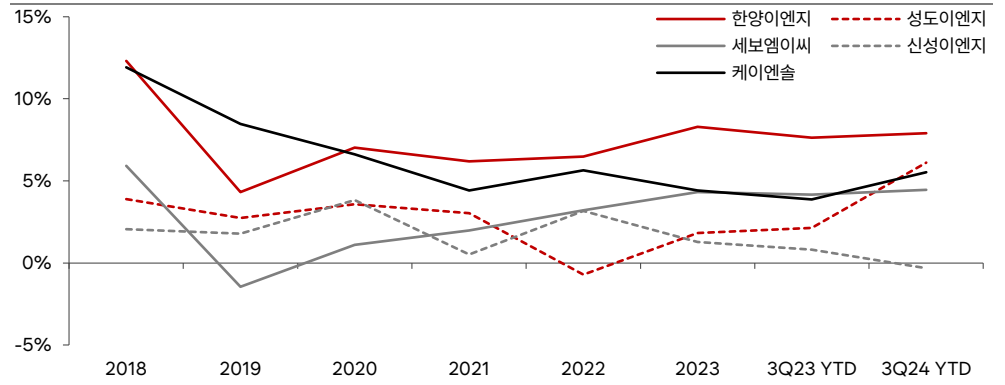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21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성장에 그쳐, 2018~2023년 5개년 연평균성장률(CAGR) 8.0%에는 못 미쳤으며, 동기간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전년동기(33억 원 흑자)대비 적자전환하며, 동종업종 5개사 중 유일한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0.3%로 전년동기(0.8%)대비로는 1.1%p 하락하며, 동종업종 5개사 중 최저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클린환경(CE) 사업부문은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 3,924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OPM 0.5%)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3,540억 원)대비 10.8% 성장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22억 원)대비 20.5% 감소하였다. 2024년 3분기 실적만 보면 클린환경(CE) 매출액은 1,427억 원으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성장했으나, 영업손실이 41억 원(OPM -2.9%)으로 부진했다. 실적부진은 고객사의 투자 취소, 추가계약 및 정산 지연에 기인한다.

동기간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매출액은 265억 원으로 전년동기(529억 원)대비 50.0% 급감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5억 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24억 원 흑자)대비 적자전환하였다. 기타 사업(임대/용역) 매출액은 27억 원, 영업적자 6억 원을 기록하였다. 재생에너지 부문 분기 매출액은 2022년 2분기에는 403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외형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들어 1,2분기에는 분기 매출액이 70억 원대까지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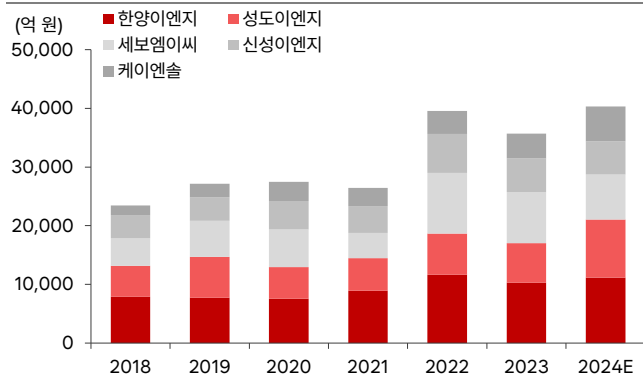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클린환경(CE)부문의 매출비중이 93.1%로 절대적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보더라도 클린환경(CE) 사업부문만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0.5%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클린룸 주요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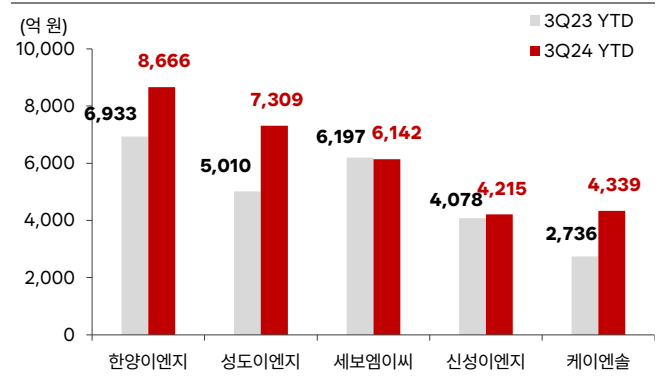
자료: 업체별 실적자료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클린룸 5개사 합산 매출액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클린룸 5개사 3Q24 누적 매출액 비교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IT·ET·BT 등 하이테크산업비중 확대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2021~2024년 3개년간 매출액
CAGR은 38.7%로 고성장세

동사의 연결 기준 사업부문은 크게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과 종합건설시공부문으로 양분된다.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은 IT, BT, ET 등 첨단산업의 클린룸(CR, BCR, 드라이룸) 설비공사 사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주력 캐시카우로, 향후 AI 반도체, OLED,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4차산업 수요 증가로 성장을 주도할 분야이다. 동사는 1987년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태동기에 창업하여 37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업체로 사업초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 위주로 성장하여 현재는 2차전지 드라이룸 및 제약/바이오산업 클린룸(BCR)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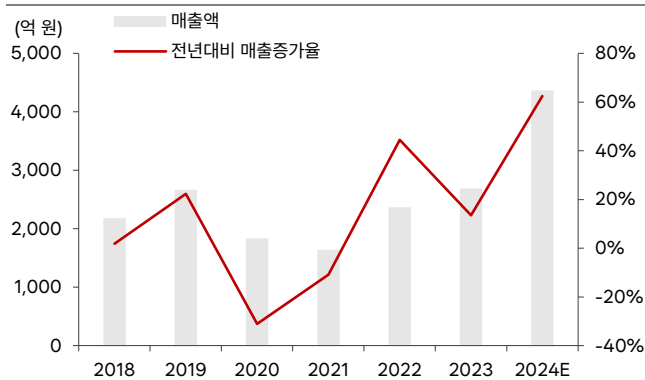
하이테크산업설비 매출액은 2019년 2,667억 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1,839억 원, 2021년 1,63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엔데믹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전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하여 2022년 2,368억 원, 2023년 2,68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4% 급증하며 매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2021~2024년 3개년 매출액 CAGR은 38.7%에 달할 전망이다.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매출비중은 2021년 29.5%에서 2022년 33.6%, 2023년 39.6%에서 2024년에는 44.1%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수익성은 전체 사업부문 평균을 상회하는 만큼 하이테크산업설비 매출 확대는 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446억 원) 중 하이테크산업설비 영업이익은 254억 원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6.1%보다 높았다.

최근에 수행한 사업실적을 보면 주요 고객사로 반도체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요일렉트론코리아, 해성디에스, DB하이텍, SK실트론, 테스, 한국알박, 솔브레인, MEMC코리아, 원익PS 등이 있으며,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천안 탕정), 삼성SDI,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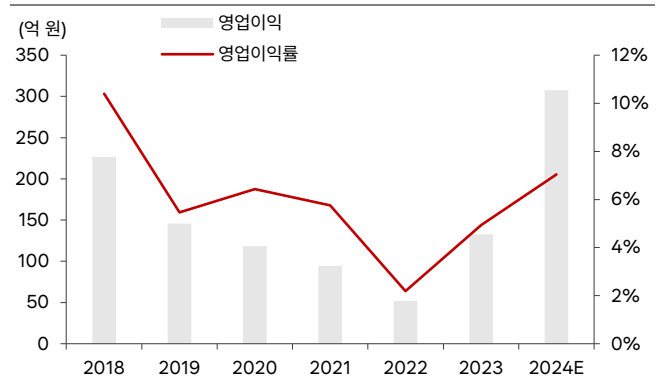
2차전지 드라이룸 주요 고객사로는 에코프로글로벌, 에코프로AP, 포스코퓨처엠, 롯데케미칼, LG엔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Jaese Energy(중 론바이 한국 양극재 생산 자회사) 등이 있으며, 제약바이오 부문 주요 고객사로는 셀트리온, 씨젠, 중외제약, 녹십자, 일성신약, 신신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 아이큐어, 안센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다.

성도이엔지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매출액 추이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성도이엔지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량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의 지분법이익 증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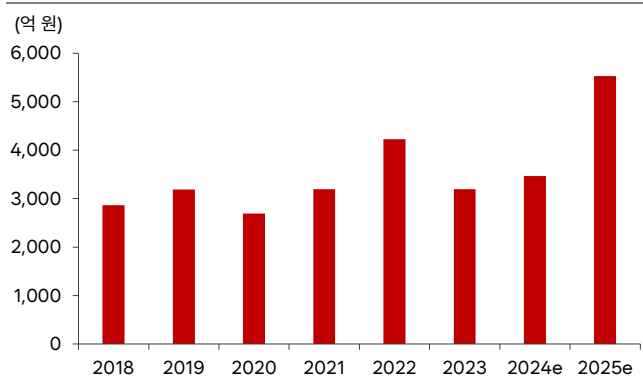
관계기업 에스티아이의 실적 개선은 동사의 지분법이익 증가 요인, 에스티아이는 2025년부터 HBM 수요 증가와 신규 리플로우 장비판매 확대로 실적 대폭 증가 예상

동사가 지분을 20.22%를 확보하고 있는 관계기업인 에스티아이는 기존사업인 C.C.S.S 및 Wet System 이외에도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제품인 리플로우의 판매 확대로 지분법이익 증가 기대감이 크다. 에스티아이는 1997년 설립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최대 매출품목은 C.C.S.S(중앙약품공급시스템)로 1H24 기준 매출비중 80.7%이며, 디스플레이용 Wet System(세정/식각/현상 System) 매출비중은 12.3%. 기타 매출비중은 7.0%를 차지하였다. 주력 제품인 C.C.S.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삼성디스플레이 등으로 주로 공급되며, Wet System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중국 패널업체 등으로 공급된다.

동사는 2013년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Reflow) 장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공정장비시장에도 첫 진출하였다. 리플로우(Reflow)는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탑재하여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여 주거나 전기적 연결 돌출부를 만들기 위해 웨이퍼에 형성한 Solder Bump 또는 Solder Ball을 용융시키는 장비로 주로 미국업체가 독점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이다. 에스티아이가 리플로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존 외산 장비와 비교해 원가절감, 생산성, 불량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리플로우 장비는 최근 AI산업 성장에 따라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리플로우 장비 매출은 2021년부터 국내 반도체업체로 본격화되었으며, 기존에는 플럭스(Flux)를 활용해 HBM의 적층된 메모리 접합(본딩)을 돕는 Flux Reflow 장비 위주로 공급했으나, 최근에는 플럭스 없이 단을 쌓는 Fluxless Reflow 장비시장에도 진출해 HBM의 수혜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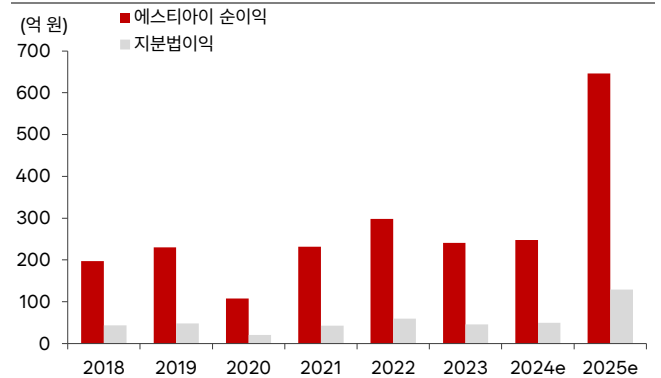
동사는 에스티아이의 최대주주로 지분율 20.22%를 보유하고 있어 에스티아이 순이익의 20.22%가 동사의 지분법이익으로 반영된다. 2023년 기준 에스티아이의 매출액은 3,195억 원, 당기순이익은 241억 원으로 지분법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했으며, FnGuide 컨센서스에 따르면 향후 매출액은 2024년 3,464억 원에서 2025년 5,527억 원으로 성장하고, 순이익은 2024년 248억 원에서 2025년 646억 원으로 2025년부터 가파른 외형 및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 이에 따른 지분법이익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5년 130억 원으로 2.6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에스티아이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스티아이, FnGuide 컨센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스티아이 당기순이익 & 지분법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스티아이, FnGuide 컨센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가스 & 케미컬 부문 고성장세

2022년 신규 진출한 가스&케미컬 부문은 2024년 매출액 1,084억 원으로 YoY 376.9% 급증하며, 외형 및 수익성 기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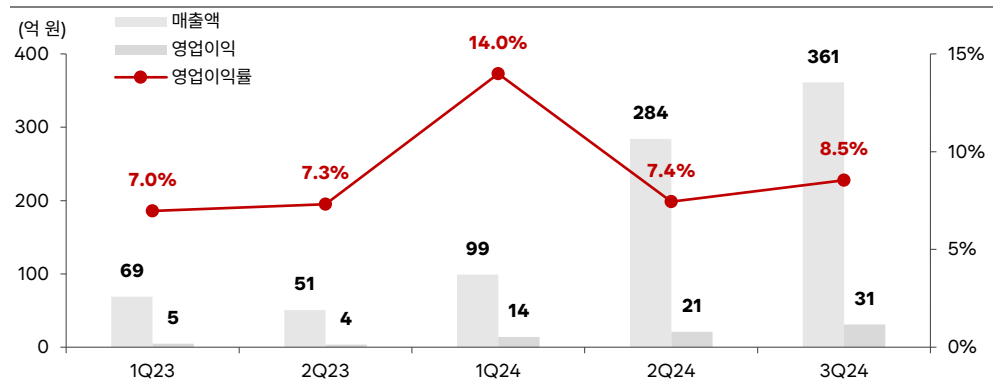
동사는 지난 2023년 가스&케미컬 사업부를 신설해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산업가스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용되는 특수가스 설비뿐 아니라 프리커서(전구체), 정밀화학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검토, 기본 설계부터 최종 운영까지 전분야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가스&케미컬 부문 매출액은 2023년 227억 원에서 2024년 3분기 누적 744억 원을 기록하여 이미 전년 수준의 3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1,084억 원으로 전년대비 376.9% 급증, 전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가스&케미컬 매출비중은 2023년 3.0%에 불과했으나, 2024년 1분기 5.2%, 2분기 10.9%, 3분기 12.9%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가스&케미컬 부문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동기(-13억 원 적자)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8%를 기록하여 전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동사가 2023년 사업 진출 이후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면 에코프로AP(고순도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에코프로그룹 산업가스 생산기업)의 포항 ASU(공기분리장치, Air Separation Unit) 2공장 EPC 프로젝트에 이어 포항 ASU 3공장 Engineering을 진행 중이며, 2022년 에코프로글로벌로부터 EcoPro Global Hungary ASU 1공장 EPC 공사와 LHM(고순도 수산화리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25년 3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사는 2023년 11월 글로벌 산업용 가스기업인 Air Liquide로부터 Sesame Xe(제논)/Kr(크립톤) 정제공장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25년 3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포스코퓨처엠으로부터 2차전지 양극재 공장 기계 및 배관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2025년 4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케미컬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4 업종내 최대 저평가 밸류에이션

2024년 추정실적대비 PER 2.2배, PBR 0.2배로 업종내 최대 저평가 종목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728억 원으로 2024년 추정실적 기준 PER 2.2배, PBR 0.2배에 불과하여 동종업종내 최대 저평가 종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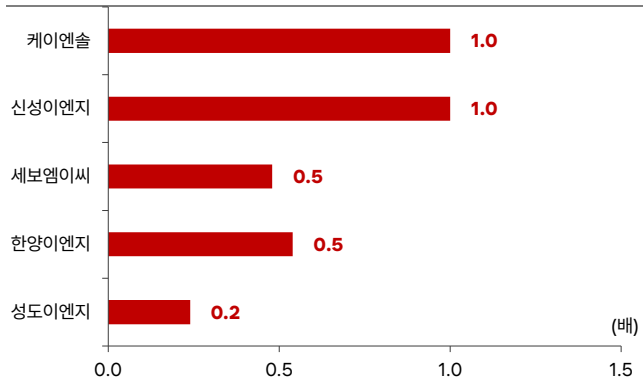
2024년 3분기말 동사의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857억 원으로 시가총액을 상회하며, 2009년 이후 최근 15년간 2022년(영업적자 50억 원)을 제외하고는 14개년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 수익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을 봐도 2019년을 제외하고는 14개년간 순이익을 기록할 만큼 견조한 영업이익 창출력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재무구조를 통해 영업외 수지도 안정되어 있다. 동사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2,630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의 3.6배 수준이며, 관계기업(지분율 20.22%)인 에스티아이의 지분가치는 527억 원에 달하며,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 및 고부가 리플로우 장비매출 확대로 향후 고성장세가 예상되어 지분법 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FnGuide 실적컨센서스에 따르면 에스티아이의 2025년 매출액은 5,527억 원으로 올해대비 +59.6% 성장이 예상되고, 당기순이익은 6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0.5%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분법이익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5년 13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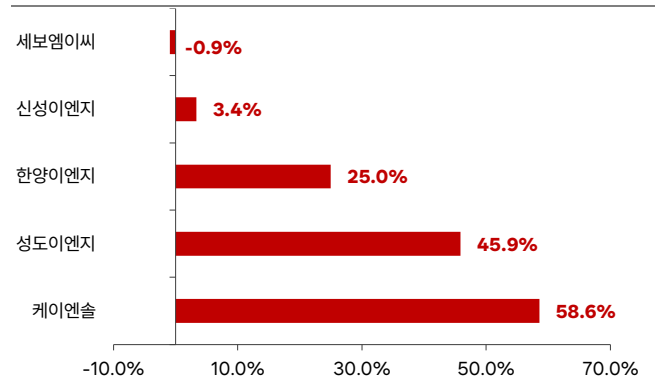
동종업종 4개사(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신성이엔지, 케이엔솔) 평균 PBR은 0.8배(한양이엔지/성도이엔지 0.5배, 신성이엔지/케이엔솔 1.0배)로 동사의 PBR(0.2배)은 동종업종내 최대 저평가 수준이다. 동종업종 5개사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7,309억 원으로 한양이엔지(8,666억 원)에 이어 업종내 매출액 2위업체이며, 영업이익은 446억 원으로 한양이엔지(685억 원)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성장률은 316.8%로 업종내 최대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6.1%로 한양이엔지(7.9%)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하였다. 동사의 2024년 추정 ROE는 12.1%로 전년(1.5%)에 비해 크게 개선될 전망되며, ROE대비 PBR 수준을 비교해봐도 현저한 저평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린룸 동종업체 5개사 PBR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3분기 누적 자본총계 기준

2024년 3분기 누적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성장률 비교



자료: 업체별 실적자료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 분석

3Q24 누적 매출액 7,309억 원, 영업이익 44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매출액 달성, 영업이익은 2010년 이후 12개년 최대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309억 원, 영업이익 446억 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45.9%, +315.6% 급증하며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010년 이후 12개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6.1%로 전년동기대비 4.0%p 상승하였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하이테크산업설비 3Q24 누적 매출액은 3,18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2% 급증하며 전체 외형 증가세를 견인하였으며,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영업이익은 2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5.5% 급증하였다. 동기간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하였으며, 전 사업부문 평균 영업이익률 대비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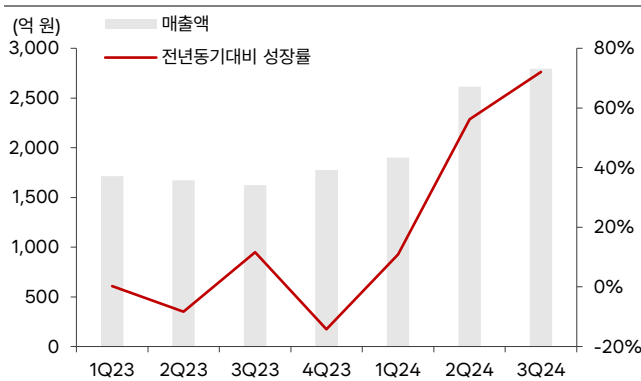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과 더불어 동사 연결 매출액을 양분해온 종합건설시공 부문 매출액은 2,98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8% 성장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종합 건설시공 부문 영업이익률은 3.9%로 전년동기대비 2.1%p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실적에서 주목할 부문은 2022년 신규로 사업에 진출한 가스&케미컬 사업부문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 744억 원으로 이미 전년 연간 매출액(227억 원)을 3배 이상 상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8%로 전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였다.

플랜트 부문 3Q24 누적 매출액은 33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8%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7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 전환하였다. 플랜트 사업부문은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5개년 연속 대규모 영업적자를 시현했으나, 2024년 들어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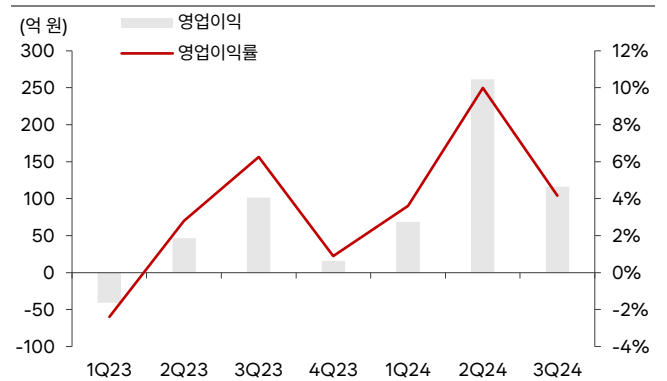
부동산개발 및 기타 부문 3Q24 누적 매출액은 59억 원으로 전년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 전환하였다.

연결 기준 분기별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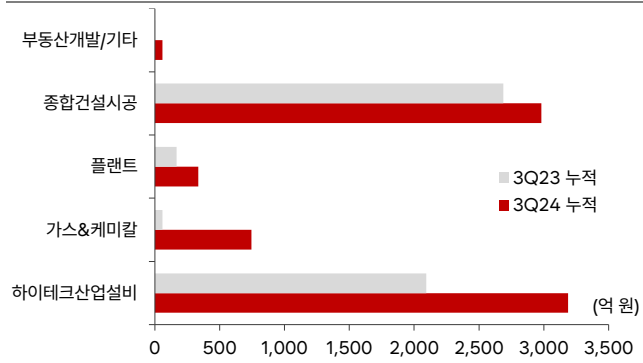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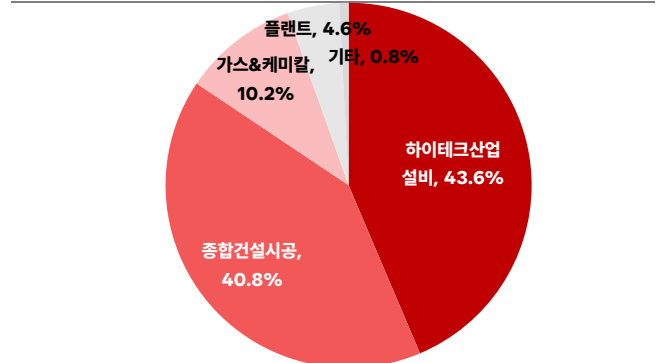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비교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기준 3Q24 누적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자료: 성도이엔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연간 실적 전망

**2024년 연간 매출액 1조 원 육박,
영업이익은 526억 원으로
YoY +327.3%로 급증 전망**

2024년 연간 매출액은 9,896억 원으로 전년대비 45.8% 급증하며 1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526억 원으로 전년대비 327.3% 급증할 전망이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5.3%로 2017년 이후 7개년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하이테크산업설비 4,368억 원(YoY +62.4%), 종합건설시공 3,956억 원(YoY +9.8%), 가스&케미칼 1,084억 원(YoY +376.9%), 플랜트 416억 원(YoY +78.0%), 기타(부동산개발 등) 71억 원(YoY -6.3%)을 차지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하이테크산업설비 44.1%, 종합건설시공 40.0%, 가스&플랜트 11.0%, 플랜트 4.2%, 기타 0.7%를 차지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전 사업부문에서 외형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이테크산업설비와 가스&케미칼 부문에서 가파른 매출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에서는 동사의 최대 수요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산업에서 산업용 클린룸(ICR)과 드라이룸 수요가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2024년 하이테크산업설비 매출액은 4,36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4% 급증하여 전체 외형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5,375	5,556	7,058	6,786	9,896
하이테크산업설비	1,839	1,638	2,368	2,689	4,368
종합건설시공	1,910	3,277	4,133	3,601	3,956
가스&케미칼	-	-	-	227	1,084
플랜트	942	606	540	234	416
기타	684	35	17	35	72
매출비중					
하이테크산업설비	34.2%	29.5%	33.6%	39.6%	44.1%
종합건설시공	35.5%	59.0%	58.6%	53.1%	40.0%
가스&케미칼	0.0%	0.0%	0.0%	3.4%	11.0%
플랜트	17.5%	10.9%	7.7%	3.4%	4.2%
기타	12.7%	0.6%	0.2%	0.5%	0.7%
영업이익	192	169	-50	123	526
영업이익률	3.6	3.0	-0.7	1.8	5.3
순이익(지배)	893	214	11	40	335
순이익률	16.6	3.9	0.2	0.6	3.4
매출증가율	-22.7	3.4	27.0	-3.9	45.8
영업이익증가율	1.3	-12.3	적전	흑전	327.3
순이익증가율	흑전	-76.1	-94.8	258.3	740.8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ER 2.2배, PBR 0.2배로 동종업종내 최대 저평가 종목

현재가는 2024년 추정실적대비 PER 2.2배, PBR 0.2배로 코스닥평균(PER 27배, PBR 2.3배)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클린룸사업을 영위하는 동종업종 4개사(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신성이엔지, 케이엔솔) 평균 PBR 0.8배 대비로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728억 원으로 동종업종 4개사 평균 시가총액(2,000억 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주가 약세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동사의 연결 기준 사업구조가 동종업종내 타사와는 다르게 하이테크산업설비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시공 부문으로 양분되어 건설부문의 노출도가 크다는 점이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IR활동 부족으로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이해도 부족도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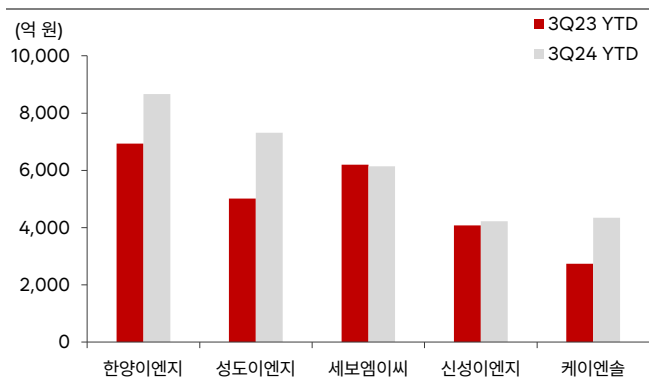
동사의 최대 사업부문은 하이테크산업설비로 주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산업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클린룸(ICR),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BCR)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클린룸 시공업체로는 동사를 포함하여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신성이엔지, 케이엔솔(舊 원방테크) 등 5개사가 있다.

동종업종 4개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동사를 제외한 동종업종 4개사 평균 PBR(3Q24 자본총계 참조)은 0.8배(한양/세보 0.5배, 신성/케이엔솔 1.0배)로 동사의 PBR은 0.2배로 동종업종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24년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3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정 PER은 2.2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출성장성을 보면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7,30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9% 성장하여 업종내 2차전지에 특화된 케이엔솔(YoY +58.6% 매출성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3Q24 누적 영업이익이 44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6.8% 급증하여 동종업종내 이익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6.1%로 한양이엔지(OPM 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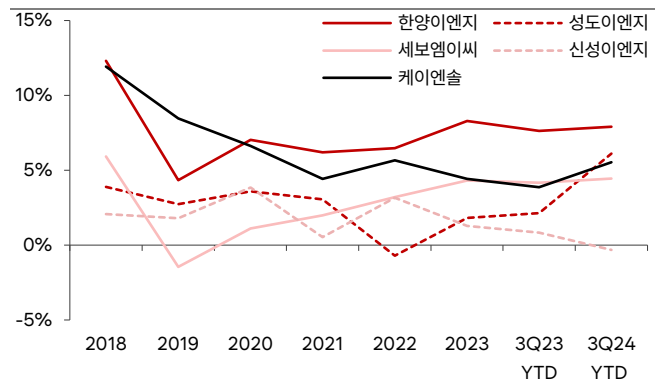
매출성장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동사의 주가 할인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며, 향후 하이테크산업설비 부문의 외형성장과 더불어 신규로 진출한 가스&케미칼 부문의 수익 기여, 관계기업인 에스티아이의 지배법이익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리레이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업종 5개사 매출액 비교



자료: 업체별 실적자료 참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종 5개사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 업체별 실적자료 참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단위: 억원, 배, %)

		성도이엔지	한양이엔지	신성이엔지	케이엔솔	세보엠이씨
시가총액		728	2,988	2,534	1,732	1,069
자산총계	2021	4,439	6,249	4,767	2,806	3,131
	2022	5,016	7,316	5,776	3,207	4,419
	2023	6,456	8,277	5,877	3,965	4,132
	2024E	6,494	N/A	6,087	4,194	N/A
자본총계(지배)	2021	2,577	4,129	2,079	1,447	1,624
	2022	2,582	4,723	2,109	1,580	1,834
	2023	2,614	5,332	2,433	1,689	2,103
	2024E	2,935	N/A	N/A	1,860	N/A
매출액	2021	5,556	8,910	4,545	3,111	4,326
	2022	7,058	11,629	6,641	3,888	10,320
	2023	6,786	10,262	5,765	4,174	8,717
	2024E	9,896	N/A	5,247	5,825	N/A
영업이익	2021	169	551	24	137	86
	2022	-50	753	210	220	331
	2023	123	851	74	185	376
	2024E	526	N/A	52	362	N/A
영업이익률	2021	3.0	6.2	0.5	4.4	2.0
	2022	-0.7	6.5	3.2	5.7	3.2
	2023	1.8	8.3	1.3	4.4	4.3
	2024E	5.3	N/A	1.0	6.2	N/A
당기순이익(지배)	2021	214	458	-159	87	117
	2022	11	698	341	159	236
	2023	40	774	162	113	302
	2024E	335	N/A	-36	219	N/A
PER	2021	4.1	6.6	-27.4	21.7	6.4
	2022	62.0	3.7	9.4	7.0	3.4
	2023	15.9	3.6	25.9	20.2	3.1
	2024E	2.2	N/A	-70.4	7.9	N/A
PBR	2021	0.3	0.7	2.1	1.3	0.4
	2022	0.3	0.5	1.5	0.7	0.4
	2023	0.2	0.5	1.7	1.4	0.4
	2024E	0.2	N/A	N/A	0.9	N/A
ROE(지배)	2021	8.8	11.8	-8.0	6.2	7.4
	2022	0.4	15.8	16.3	10.5	13.7
	2023	1.5	15.4	7.2	6.9	15.3
	2024E	12.1	N/A	N/A	12.3	N/A
현금배당수익률	2021	2.7	3.3	0.0	2.0	3.5
	2022	2.2	4.2	0.0	3.5	6.6
	2023	2.4	3.9	0.0	1.7	6.3
	2024E	2.1	N/A	0.0	2.3	N/A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Peer 실적 추정치는 Fnguided 컨센서스 기준

리스크 요인

1 순수 클린룸업체가 아닌 절반이 건설업종에 노출된 사업구조

**매출비중 절반이 건설에 노출된
사업구조는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

동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IT, BT, ET 등 하이테크산업비중이 2022년 33%, 2023년 39%, 1H24 43%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종합건설시공 및 플랜트 등 건설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순수한 하이테크산업 위주의 Pure Player가 아니라는 점은 동종업종내 동사 주가의 디스카운트(PBR 0.2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반도체 및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하이테크산업비중 확대로 종합건설시공 매출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53%, 1H24 43%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건설부문은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PF 문제 등 업황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에 부담요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사가 그동안 매년 적자를 야기한 플랜트 부문 사업규모를 매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랜트 매출액은 2019년 1,375억 원에 달했으나, 2020년 942억 원, 2021년 606억 원, 2022년 540억 원, 2023년 23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플랜트 부문 영업적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470억 원에 달했던 만큼 플랜트 부문 사업축소는 향후 실적개선에 긍정적이다.

2 소송사건 관련

**2013년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화재건 관련 소송 진행 중**

동사와 동사의 종속기업인 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는 2016년 9월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외 4개 보험사로부터 2013년 9월 중국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귀책사유로 피소되었다. 동사는 2016년 9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1,227억 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약 1,227억 원 중 약 12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사는 일부 패소분(129억 원)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21년 2월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원고들도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반기말 현재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1심대비 2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경감된 점이 긍정적이며, 3심 재판은 내년초로 예정되어 있다. 본 재판이 종료되어야 SK하이닉스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5,375	5,556	7,058	6,786	9,896
증가율(%)	-22.7	3.4	27.0	-3.9	45.8
매출원가	4,964	5,146	6,879	6,400	9,086
매출원가율(%)	92.4	92.6	97.5	94.3	91.8
매출총이익	411	410	179	386	810
매출이익률(%)	7.6	7.4	2.5	5.7	8.2
판매관리비	218	241	229	263	284
판매비율(%)	4.1	4.3	3.2	3.9	2.9
EBITDA	216	189	-30	149	591
EBITDA 이익률(%)	4.0	3.4	-0.4	2.2	6.0
증가율(%)	-2.2	-12.2	적전	흑전	297.6
영업이익	192	169	-50	123	526
영업이익률(%)	3.6	3.0	-0.7	1.8	5.3
증가율(%)	1.3	-12.3	적전	흑전	327.3
영업외손익	997	58	0	-75	-75
금융수익	25	30	37	51	58
금융비용	25	8	21	46	53
기타영업외손익	997	36	-16	-81	-8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21	43	60	46	46
세전계속사업이익	1,210	270	10	94	498
증가율(%)	흑전	-77.7	-96.2	822.6	431.0
법인세비용	319	67	3	47	108
계속사업이익	892	203	7	46	39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92	203	7	46	390
당기순이익률(%)	16.6	3.7	0.1	0.7	3.9
증가율(%)	흑전	-77.2	-96.4	531.9	74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93	214	11	40	335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6	304	21	409	1,591
당기순이익	892	203	7	46	390
유형자산 상각비	22	20	19	25	64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1
외환손익	7	0	0	5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68	52	-1	230	1,173
기타	-760	28	-5	102	-3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	-25	118	-1,302	-91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7	-34	-33	-7	-964
유형자산의 감소	11	3	6	13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9	-41	-63	-202	-94
기타	-39	47	208	-1,106	14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8	-230	-52	988	-485
차입금의 증가(감소)	160	-131	0	631	-47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388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5	-29	-21	-14	-14
기타	13	-70	-31	-17	0
기타현금흐름	-13	31	7	-4	15
현금의증가(감소)	-131	81	94	92	204
기초현금	588	457	537	631	723
기말현금	457	537	631	723	927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유동자산	2,497	2,913	3,397	4,608	3,634
현금성자산	457	537	631	723	927
단기투자자산	286	292	119	466	326
매출채권	354	682	1,127	1,293	647
재고자산	591	666	692	703	738
기타유동자산	809	735	827	1,424	997
비유동자산	1,598	1,526	1,619	1,847	2,860
유형자산	288	339	527	715	745
무형자산	54	55	69	73	72
투자자산	809	715	788	816	1,799
기타비유동자산	447	417	235	243	244
자산총계	4,095	4,439	5,016	6,456	6,494
유동부채	1,494	1,552	2,144	2,930	2,533
단기차입금	310	214	202	674	200
매입채무	611	792	924	834	1,167
기타유동부채	573	546	1,018	1,422	1,166
비유동부채	318	326	310	911	971
사채	0	0	0	389	389
장기차입금	0	0	0	160	160
기타비유동부채	318	326	310	362	422
부채총계	1,811	1,878	2,454	3,841	3,504
지배주주지분	2,289	2,577	2,582	2,614	2,935
자본금	77	77	77	77	77
자본잉여금	141	145	147	143	143
자본조정 등	-27	-61	-63	-63	-6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	124	112	121	121
이익잉여금	2,107	2,292	2,309	2,336	2,657
자본총계	2,283	2,561	2,562	2,614	2,990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F
P/E(배)	0.8	4.1	62.0	15.9	2.2
P/B(배)	0.3	0.3	0.3	0.2	0.2
P/S(배)	0.1	0.2	0.1	0.1	0.1
EV/EBITDA(배)	1.4	1.3	N/A	4.6	0.5
배당수익률(%)	4.4	2.7	2.2	2.4	2.1
EPS(원)	5,770	1,380	72	258	2,168
BPS(원)	14,797	16,660	16,688	16,899	18,974
SPS(원)	34,746	35,916	45,624	43,865	63,966
DPS(원)	200	150	100	100	100
수익성(%)					
ROE	48.5	8.8	0.4	1.5	12.1
ROA	19.2	4.8	0.2	0.8	6.0
ROIC	44.1	14.0	-3.2	6.0	30.3
안정성(%)					
유동비율	167.2	187.6	158.4	157.3	143.5
부채비율	79.3	73.3	95.8	146.9	117.2
순차입금비율	-17.3	-23.8	-21.2	1.7	-16.4
이자보상배율	28.5	22.3	-6.7	3.7	11.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2	1.3	1.5	1.2	1.5
매출채권회전율	9.7	10.7	7.8	5.6	10.2
재고자산회전율	6.8	8.8	10.4	9.7	13.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성도이엔지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